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6일(금) 교원정계제 심위원회 대강당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윤옥(경기대 교수)은 “학교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 교수는 교육은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기능으로서 생산과 가치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학교의 교육목적과 지향하는 목적이 같다.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의 장, 교수-학습의 열린 장, 학교사회의 정보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축이며, 학교 구성원들의 정보탐색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장, 독서활동의 중심장,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의 장이며 문화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문제는 사서교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도서관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초래된 것이 아니고 왜곡된 교육 이념과 교수-학습 구조상의 문제 등 사회전체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교육관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문제나 교육당국자의 인식부족을 도서관 문화가 형성될 수 없었던 사회적 구조와 올바른 교육이념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진정한 학교교육의 심장부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곧 거시적으로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놓게 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희수(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운영실장)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태 및 외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도서관은 우리 문화의 DNA이며, 책의 공동묘지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문명의 영생을 담보하는 인류의 최고, 최선,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규정하고, 변화의 소용돌이가 칠 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갈 길이 보이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태초로 돌아가 도서관의 가치를 재확인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도서관의 상실은 책의 상실을, 책의 상실은 인류 기억의 상실을, 결국은 인류와 문명의 멸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의 의의를 우리 인류·문명의 DNA로서 도서관의 유전자 검색에서 찾는다고 설명하였다. OECD는 학교도서관은 도서상자에서 정보연결자로, 학생들과 도서만을 위한 학생도서관에서 만인을 위한 학습자원정보센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재편에 착수하였으며, 지식경제를 선점하고자 하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도 한결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계는 지금 학교교육의 심장인 도서관의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검진하고 이러한 처방에 기초하여 리모델링에 한창인 건설 현장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핵심은 건축학+정보공학+환경공학의 결합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교시설의 인텔리전트화, 쾌적화, 에코화, 복합화라고 설명하였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제언으로, 1) 학교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비전 설정 요구, 2) 도서관의 기본에 충실, 3) 기반 못지 않게 도서관 이용 문화 진흥에 노력, 4) 민·관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하여 ‘민’의 자발성을 촉발시킬 ‘관’의 방아쇠 효

과 도모, 5) 선택 집중하여 포도다발 효과 극대화, 6) 연계성의 원리에 충실, 7) '민'의 힘을 극대화하고 학부모에게 힘을 부여, 8) 학교도서관의 전문화, 끝으로, 9)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정비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학교도서관 행정지원체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촉진, 학교도서관 전담 연구개발지원 기능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승현(교육인적자원부 조정2과장)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정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다시 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간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수립한 대책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정부 부처,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수립하였음을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들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기본 학습공간이자 학교교육계획서가 구현되는 현장이라는 점이라며 학교마다 상이한 교육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 민

간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협조 및 책임분담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상완(연세대 교수)은 학교도서관을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시킬 기초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인 전담 사서교사의 배치, 임시로 초·중·고등학교도서관에 일하는 일용직사서와 사서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성민(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은 농어촌 지역과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 전문가 배치,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도서관으로 그 기능 확대,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장의 교육관과 교사들의 인식전환, 학부모들의 참여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선평(경북교육청 장학사)은 사서교사를 대폭 증원 배치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지역교육청마다 3명~6명 정도의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육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도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시·도교육청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 필요한 인력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전문인력과 보조인력(학부모 자원봉사자는 물론 겸임사서교사와 계약제 사서까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도교육청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경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으로 내놓은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종래의 여러 시설을 모아 놓은 집합체가 아닌가 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 즉, 시청각실과 컴퓨터실, 서고와 열람실을 모아 놓으면 바람직한 학교도서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안들은 사서교사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박홍진(성화여고 도서관 담당 교사)은 입시와 학교도서관의 관계, 인성과 학교도서관의 관계, 지역 사회와 학교도서관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학교도서관 예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학교도서관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삼순(광주화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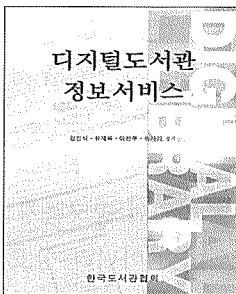
은 미국이 존재하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바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과 유관 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옥자(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장)는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사서교사의 확보, 각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 설치, 사서교사 역할에 대한 통일된 논의, 이미 준비된 지역 우선으로 학교도서관의 정착화, 민간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평가 및 우수학교 대폭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 간

#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진식, 유재옥, 이란주, 유사라 공저



크라운판/403쪽  
ISBN 89-7678-059-0  
정가 16,000원  
회원보급가 12,800원

### 목 차

- 정보서비스의 이해
- 정보질의와 응답과정
- 정보면담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라인 정보서비스
- 온라인 정보탐색과정
- 정보네트워크와 상호협력
- 정보길잡이 구축
- 이용자 교육
- 정보서비스 평가
- 웹 참고정보원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시민단체, 디지털도서관 공개토론회

8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의 주제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정보공유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후원하는 디지털도서관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이재환(부산대학교 교수)은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먼저 디지털기술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디지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구조와 형태에 익숙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유통시킴에 도전적인 정보자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나 없이 디지털 기술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식은 깨달음의 원인이요 결과이고,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삶의 양식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배움을 목말라 하면서도, 배움의 목적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진정보사회의 문화적 산물인 디지털도서관을 우리 사회에 이식하는 작업은 보다 진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조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이며, 시급한 것은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본질과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의 도서관 정보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는 디지털도서관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과거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볼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거나 열악한 규모의 인쇄된 출판물을 보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도서관의 주변 실정은 크게 바뀌어 최근 20년 사이 도서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으며,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정보처리·통신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신기술 도입으로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전송하는 수단의 발달을 촉진하는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은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와 창조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정경희(정보공유연대)가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저작물의 생산 및 유통배포의 전 과정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불법적인 복제의 가능성을 높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접근과 이용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향유해야 할 공정한 이용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상황 모두 정보의 이용과 창작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은 너무도 명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복제의 가능성으로 인한 손실에만 주목하여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훼손시키는 입법이 아니라 상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용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저작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염두에 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2002학년도 학교도서관현장연수 '도서관의 만남, 그리고 관계'**

'학교도서관을살리는교사들' 모임은 7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연수를 가졌다.

먼저 이번 연수에서는 김경옥(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정책국장)이 "참교육실천과 학교도서관"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교사는 일정한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것을 수업시간에 배우고, 혼자서 그 내용에 대해 복습이나 연습을 한 후, 그것을 일정한 시기에 시험이라는 형태로 평가받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비판하였다. 학교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함께 지식을 탐색하고 생산하고 교류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형태, 평가형태, 과제물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바뀌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과 수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토의수업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토의 수업 성패의 열쇠는 독서에 있기에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도서관 없이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은 불가능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대중적인 독서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학교의 문화가 집약된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학교에 없다는 것은 학교에 문화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학생들에게 필독독서를 정해 두고 읽은 내용을 독후감 형태로 제출하게 하여 독서교육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교과담당 교사들이 책을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주어 학생들이 독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싶은 충동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학교도서관은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잡게 되며, 새 학교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래에서는 학교도서관 환경이 아무리 잘 구축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도서관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과후 학생들이 자기 관심 분야별 동아리회원들과 이곳 저곳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상담실과 교무실 등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도서관에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책을 찾고, 인터넷과 통신망을 검색하는 학교풍경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교육 개혁은 제대로 정착될 것이고 새로운 학교문화가 교육현장에 자리잡힐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탐구능력을 자극하고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연구풍토 조성,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탐구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은주(계성여고 교사)는 "교과교사간 협력수업 사례, 가정과와 미술과"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자료 센터로서의 기능, 학습 활동(조사·연구)센터, 독서 생활 센터, 과외 활동 및 여가 선용 센터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도서관 협력 수업은 교과 담당 교사가 사서교사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공간과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형태로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 단원을 정하고, 그 단원 학습과 관련이 되는 주제를 선정한 다음, 그 주제를 사서교사에게 알려 주면 사서교사는 교과 담당 교사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찾아 교과 담당 교사에게 알려주고, 필요하면 도서를 새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교과담당 교사는 사서교사가 찾아준 자료들을 학생들이 활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단순 협력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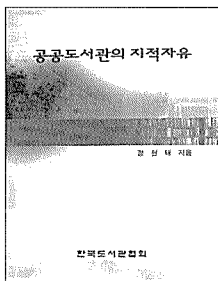
백화현(난우중학교)은 “국어시간활용 수업, 각 교과활용수업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말로만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독서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아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독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설명하였다. 독서교육이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그 내용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책은 잘 읽으면 약이 되지만 잘

못 읽으면 독이 되므로 아무 책이나 많이만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아무리 좋은 책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학교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도서관 전산화는 물론이고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 학습 및 독서에 대한 서비스, 양질의 풍부한 도서 및 자료, 항상 열려 있는 문 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큼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다양한 도서실 행사를 전개하여 독서교육의 내용을 측면으로 지원하고, 이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독서 교육은 그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 간

##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정 현 태 지음



신국판/반양장/176쪽  
ISBN 89-7678-058-2  
정가 8,000원  
회원보급가 6,400원

목 차

- '도서관 지적자유'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이용자 지적자유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④ ; '기록매체의 보존 관리' 국제학술대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전공)는 공동으로 '기록매체의 보존관리' 라는 주제로 7월 3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로즈우드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매체의 관리보존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보존관리에 관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한상완(한국기록관리학회장)과 김성수(한국기록관리학과 총무이사)는 공동으로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한국의 기록보존에 대해, 1) 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문제, 2)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기록물의 보존 문제, 3) 기록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 기록보존·관리의 전문인력 교육·양성 문제, 5) 기록보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보존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는, 전문서고 신축 때에 대통령기록관의 입주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들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문헌들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영구보존하고, 기록자료보존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문헌 보존·복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Liu Wei(중국 섬서성 당안국 부국장)는 "미래의 중국 당안 관리 연구 -디지털당안관 건설의 초보적인 탐색"에 대해 발표하였다. 디지털당

안관을 건설하는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당안 관리, 디지털당안관의 조작 및 전통당안의 디지털화에 대해 완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선진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한 업무 규칙과 기준을 건립하며, 각 유형의 디지털 자료창고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것의 최종목적은 당안관 관장의 정보에 대해 디지털식 관리를 실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특징은 정보 관리의 디지털화, 자동화, 서비스의 네트워크화와 다양화, 정보내용의 광범성인데, 예를 들어 각 종의 매체 정보, 정보의 저장과 사용자 방문이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 자원의 집산처로서 당안관이 네트워크 운영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당안관은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찾아 네트워크사회에서의 경쟁능력을 높여 사회 대중을 위해 서비스하고 이로써 미래 사회의 공중 정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壺阪 龍哉(일본 기록관리학회장)은 "조직의 지식과 경험의 전송 - 디지털 시대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보기술혁명에 의해 대량의 정보와 지식이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인류 기억의 보고의 풍부한 전송을 꾀하여, 이것에 의해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기록관리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다면적으로 검토,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종이, 필름, 전자매체에 관계없이, 기록관리시스템

을 도입하고 장기에 걸쳐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나 각 관청에서 일시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나, 대부분 일시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온 기관이 적다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중국 등 극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기록관리학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록관리의 보급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Michele V. Cloonan(미국 UCLA 부교수)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전환 - 그렇다면 보존은?”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전자문서의 보존은 보존관리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가져다주었고 정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파악하기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서가 일단 매체에 쓰여지면 수 백년, 혹은 수 천년까지 영속할 수 있었으나, 전자문서는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체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든가, 기술력이 시대에 뒤떨어져 쓰이지 않는다는든가, 표준이나 안내지침이 부족하거나, 보존관리인들의 전자문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이라고 하였다. 종이자료와 달리, 전자매체는 물리적인 객체로 보존될 수 없고, 전자문서는 단지 문서를 재생할 능력을 보존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의 적절한 관리가 문서보존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자정보관리의 초창기인 지금 우리가 최선의 문화유산물이 지닌 잠재력과 함정을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완전

히 이해할 때까지 완전한 보존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윤대현(정부기록보존소 보존과장)은 “새로운 기록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보존 처리”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숫자 및 문자정보, 음성, 동영상, 그리고 정지영상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자기매체나 더 많은 대용량을 수록할 수 있는 광매체들은 이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매체들은 기존의 기록저장 매체보다는 다양하고 대규모의 내용이나 사건들을 수록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의 장기적 저장 필요성은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Hans Hofman(네덜란드 국립기록청)은 “세계적으로 부상한 연구과제 : 전자자료의 보존”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전자보존이라는 것은 한 기관이나 한 분야,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루어야 할 세계적인 규모의 쟁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불후의 해결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존을 위한 필요조건은 전자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문서에서 장기보존에 관련된 기준은 문서생산기관에서 문서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문서가 어디서 관리되어지느냐에 따라 문서시스템이나 업무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자문서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면 전자정부와 전자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완전히 재구축 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철승((주)시공테크 상무이사)은 “자료보존 수장고 설계와 실제”에 관해 발표하였는데, 박물관의 유물과 보존서고의 기록물은 과거의 산물을 보존하는 성격이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았다. 다만 박물관의 경우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반면, 기록물은 유물과는 달리 그 시대가 비슷하며 유사한 물질과 형태로 이루어져 좀 더 특성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존서고는 차단성, 조습성, 단열성, 내화성, 환경성, 수납성, 방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록물 보존에 대한 의식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비해 보존시설에 대한 의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보존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적인 보존시설이 아직까지 몇 군데 밖에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나, 보존서고와 유사한 수장고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기현 (BIOMIST 연구소 소장)은 “기록매체의 보존을 위한 신장비 개발과 천연향 소독”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중요 원본기록물의 미생물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하고, 기록물 취급자에 대한 인체 안정성 및 오염예방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관법』에 의거 기록물 소독 및 장비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동소독시스템을 적용하면, 근본적인 기록물의 훼손 예방 및 보존수명 연장, 천연소독처리를 통한 인체유독성 및 자연환경 오염 예방, 기록물 소독장비의 100% 국내 개발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서고 내 기록물의 최적 보존환경 유지, 서고 및 기록물 관리자의 인체 안정성 확보, 지

속적인 서고소독 및 효율성 확보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idney Berger(미국 UCLA, California Center for the Book 소장)는 “전자시대의 특수자료 보존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의 특수자료실의 실례를 설명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는 1969년 내과의사 J. Lloyd Eaton으로부터 7500점에 달하는 공상, 과학, 공포, 유토피아소설류를 구입하고, 이 자료들을 Eaton collection이라 불렀다. 이 자료들은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자료들이어서 다른 도서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대학에서는 장차 연구 가능한 분야로 인식하고 순수연구자료로 만들기 결정하였다. Eaton collection은 2002년에는 이런 종류로는 세계 최고로 커져서 8만 단행본과 6만5천권의 팬진(공상과학소설 팬클럽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약 2만 5천권에 달하는 대중잡지, 5만권 이상의 공상만화, 유명한 작가들의 수서본, 기타 자료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자료의 범위가 방대한 Eaton collection의 보존 전략은 복잡했다. 이러한 Eaton collection의 주된 문제점은 소장자료가 너무 다양해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보존·처리할 수 없으며, 많은 양의 자료를 보존할 때 그 비용은 아주 크므로 최선책은 아마도 두,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다. 즉, 페이지를 이미지로(글이나 삽화포함) 전자형태로 스캔이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입력하여 어떤 처리라도 그 본문을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법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통합전략은 보존, 보관, 처리, 마이크로 필름화, 원본이나 마이크로 필름에서 선별된 텍스트를 전산화, 전자형태자료를 새 매체로

선별적 이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i Yu hu(중국 섬서성 당안보호과학연구소 소장)는 “퇴변한 당안 필적의 회복과 보호”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퇴변한 필적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에 관계되는 여러 학과를 섭렵하여, 각 고의 연구 끝에 이 영역에서 일련의 중대한 돌파를 얻었다. 볼펜·복사지·푸른색 목·연필·청사진 등의 필적 재료의 퇴색·확산·회복·고정기제 및 종이 노화와 보호기제 등 복잡한 요소를 연구 분석하여 일련의 퇴변한 당안 필적회복과 보호제를 연구 제작하였다. 이 일련의 성과가 세상에 나온 이래 중국 30개성 자치구에서 정부기관, 경찰, 법원, 도시규획과 건설, 지질, 수도, 전기, 철로, 석유, 조사, 설계, 군사 등의 일부분 당안에서 응용되었고, 심각하게 퇴변한 대량의 진귀한 문헌 문물로 하여금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으며,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건을 내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국제 당안계 및 지질문물 수장, 연구 부문에서 강렬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박지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은 “중이문화재의 복원”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작고 편리하게 담고자 치중하고

있는 지금, 그 주체가 되는 기록물, 즉 종이에 적혀있는 과거의 역사는 조금씩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다른 매체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실제로 보존 대상인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핑계삼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기록물의 보존은 과거에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에 불과하므로 이 메신저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전해 받은 과거의 유물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원형을 잘 보존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록물의 소실은 그 기록물에 적혀 있는 과거 역사의 소실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존과학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탐험을 뒷받침할 많은 정보들을 제시하여 줄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될 때 한국 종이 기록물의 보존·복원이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락처(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바뀌시면 사무국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태형 팀장)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⑤ ; 진보네트워크,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진보네트워크는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7월 3일(수) 영상미디어센터(광화문 일민미술관(구 동아일보사 건물) 5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는 “정보화, 정보기본권, 그리고 헌법 - 그 헌법적 의미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 교수는 정보화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십 수년에 불과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또한 멀리 보아도 약 40년 정도의 시간적 경과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며 인터넷 구조(architecture)의 설계에서부터 그것의 설치·관리·운영, 인터넷 접근의 문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또는 사이버사회)의 구축,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 인터넷을 둘러싼 국제적 관계의 문제 등 제반의 사항들이 기존의 사회구조 및 권력구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감시와 검열을 행하는 국가와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하여 이용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기업, 사이버공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용자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인터넷은 구성되고 또 운용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철저히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흔히 '정보가 힘이다(information is power)'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세계에 있어서는 정보가 힘으로 전화되기 이전에 정보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보는 힘을 내재하고 있거나, 힘을 반영하거나 또는 그 힘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정보기본권”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성의 권리론을 헌법적 차원

으로 승화시키고 그 권리담론의 확실성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정당화하는 일련의 역동적 변혁의 과정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헌법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사회적, 법적 권력을 구성하고 제약하며 그를 통하여 기본적인 가치들-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타협을 넘어서는 원칙과 이념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혁신을 통하여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은 현실사회에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며 오프라인 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가 온라인 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인류복지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역시 권력과 자본이 가진 힘의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방화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권력과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체계에 강요되어 온 정부의 내용 규제와 시장의 지배는 새로운 정보통신체제 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상공간에서도 권력과 자본의 압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위협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면서 날로 격차가 커지는 정보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려져 밀그림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상공간이 민주화되고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의 민주화와 기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상공간을 지배하는 구도와 질서는 현실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대한 합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관용,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의 존중이 정보화 사회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중(변호사)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온라인 매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폐해, 온라인 매체의 특수성 등의 논쟁도 무척 중요하나, 보다 현실적인 논쟁 지점은 '불온통신' 규정의 위헌에 따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표현의 자유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정보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박성호(변호사)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를 지향하는 사람들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단순한 충돌로만 바라보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를 지향하는 사람들간의 문제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배원(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정보기본권」을 체계화하는 '정보' 중심의 독자적·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접근방법의 전환을 기초로 '정보통신의 비밀보장, 정보제공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정보기본권」을 구상하여 기본권 체계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대등한 하나의 기본권 계열로 파악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우(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변호사)는 감시는 행동, 사상, 양심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킨다고 전제하고, 감시의 문제는 권력통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행정부와 사용자, 기업에 대항하는 독립성을 갖는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프라이버시와 감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조사권과 의견제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감시에 대한 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통합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 간



신국판/반양장/302쪽  
ISBN 89-7678-057-4  
정가 12,000원  
회원보급가 9,600원

## 한국공공도서관 운동사

이연옥 지음

### 목차

- 해빙, 새로운 시도 그리고 좌절
- 운동의 기초 다지기와 반복적 외침
- 운동의 확대와 성과의 가시화
- 새로운 위기와 대응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